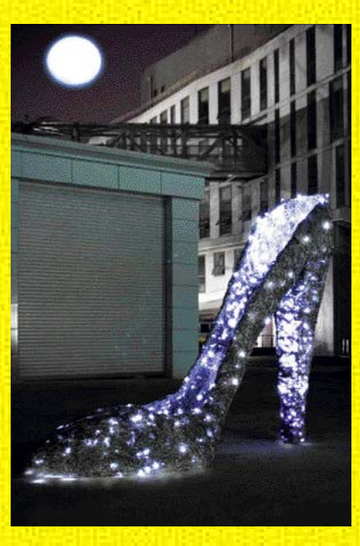
금남로도 광주천도…빛나는 빛고을

▲성동훈 작 '블루' (금남로 공원)

광엑스포 '빛축제' 13일까지 충장로 등 도심서 조명쇼

콜린카·슈발리에·이이남 등 국내·외 작가 15명 참여

9일 밤 옛 도청앞 점등식 … '소녀시대' 등 출연 콘서트



▲슈발리에 작 '디지털 가든' (광주천)

▶김민형 작 '빛의 하이힐' (충장로)

▼콜린카 외 작 '빛고을의 정기' (옛 도청 앞)

광주 도심 곳곳에 빛예술 작품이 들어선다. 화려한 영상쇼가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미디어 작품들이 일상 속으로 들어온다.

지난 2일 개막한 2010 광주세계광엑스포 행사 가운데 하나인 '빛축제-광주, 빛으로 물들다'가 9일 빛축제 점등식과 빛&빅 콘서트를 시작으로 13일(오후 7시~12시)까지 광주시내 일원에서 열린다.

파리의 에펠탑, 상하이 동방명주 등 전 세계 400여개 유명 건축물의 경관조명을 담당한 알렝 귈로가 총감독을 맡은 이번 '빛축제'는 세계 각국에서 참여한 20여명의 작가들이 다양한 빛예술을 선보이는 자리다.

작정하고 예술작품을 감상하는 공을 들일 필요 없이 옛 전남도청, 충장로, 광주천 등 도심을 산책하듯 걷다보면 다양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매일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구 도청에서 열리는 영상쇼 'Vital Force'는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다. 미디어 작가 알렉산더 콜린카와 모션 픽쳐 디자이너 리오넬 코리아킨의 작품인 '빛고을의 정기'는 빛, 사랑, 자유를 주제로 영상, 음악, 무용수, 레이저의 향연이 펼쳐지는 멀티 메가쇼다.

또 지역 작가 이이남의 '무등산과 빛의 만남'은 어머니산 무등산을 주제로 현대문화의 아이콘들을 접목한 작품이다.

옛 한국은행 자리에 위치한 금남공원과 광주천도 전시장으로 변신한다. 성동훈씨는 스틸과 구슬을 활용한 푸른빛의 대형 사슴 '블루'를 전시하며 김계현씨는 한자 '光'을 형상화한 '빛 光'을 선보인다. 또 공원 내 공간 구석 구석에 LED 오브제 조명타워가 세워진다.

리옹 빛축제 참여작가로 프랑스 최고의 레이저 테크니션으로 꼽히는 로랑 프랑소와의 '라이트 폴리곤'(매일 밤10시~12시)은 광주천 100m 구간을 뒤덮는 대형레이져쇼다.

광주천 산책로에 전시되는 세계적인 미디어 작가 미구엘 슈발리에의 작품 '디지털 가든'은 관람자가 움직이면 영상도 함께 움직이는 재미있는 작품이며 인천국제디지털아트 페스티벌 총감독을 맡았던 김형기씨는 다양한 사람의 얼굴을 광주천 교각에 설치한 '광주人'을 선보인다.

도심 곳곳에도 작품이 들어선다.

충장로에는 김민형씨가 선보이는 폭 4m, 높이 2m 크기의 '빛의 하이힐'이 시민을 맞으며 웨딩숍이 밀집한 충장로에는 손장복(2008 서울빛축제 총감독)씨가 웨딩드레스를 연상시키는 하늘 조명을 선보이는 '웨딩의 거리'를 선보인다.

또 오랜 역사를 가진 광주우체국은 붉은 색 조명을 활용한 '빛의 오페라'라는 작품으로 변신하며 이건희 작가가 선보이는 '화이트 플라워'는 충장로 거리를 화사한 꽃의 세계로 안내한다.

9일 오후 8시부터는 빛축제 점등식과 빛&빅 콘서트가 열린다. 전남도청에서는 영상쇼가 펼쳐지며 소녀시대, 브라이언, 민경훈 등이 출연하는 콘서트가 기다리고 있다.

한편 광엑스포는 빛 주제 영상관, 빛 하늘 모험관, 빛 미술관 등 9개 전시관이 설치된 상무시민공원에서 오는 5월 9일까지 계속된다.

티켓 가격 1만원, 7천원, 4천원. 문의 062-602-300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레지던시 광주' 명성 이어가려면

지난 2005년 6월 서양화가 진시영(37)은 선·후배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다. 지역작가로는 처음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의 창동스튜디오 입주작가에 선정됐기 때문이다. 창동스튜디오는 국립현대미술관이 국내외 유망 청년작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작업실을 무료로 제공하는 일종의 레지던시(Residency) 프로그램. 매년 20~30명 모집에 국내외에서 수백여 명이 문을 두드릴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그도 그럴 것이 '합격' 그 자체만으로 국립 현대미술관으로부터 '검증받은 작가'라는 프리미엄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작업실뿐만 아니라 유명비평가들과의 만남, 국내외 홍보, 전시회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이 때문에 미술계에서는 '창동스튜디오=하늘의 별 따기'라는 얘기가 나돌 정도다.

특히 지역작가들에게 '창동'은 말 그대로 '꿈의 산실'이다. 서울 출신 작가들에 비해 큐레이터, 비평가들과 교류할 기회가 적은 지역작가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어서다. 아니나 다를까. 1년간 창동스튜디오에서 내공을 쌓은 진씨는 이후 타이페이 아티스트 빌리지 입주작가 선정에 이어 신세계미술제, 하정웅 청년작가상 등을 연거푸 수상하며 입지를 굳혔다.

설치작가 손봉채(44) 역시 '레지던시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아티스트다. 오늘날 '국제작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지난 2006년 3월 중국 상하이의 듀오론 미술관 창작스튜디오의 입주생활이 큰 힘이 됐다. 이 미술관에서 5개월 동안 머문 그는 작업은 물론 근래 현대미술의 중심지로 급부상한 상하이의 에너지를 생생하게 체험했다. 이 경험을 발판으로 2006 광주비엔날레를 필두로 스페인 세비야 비엔날레, 미국, 일본 등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았다.

이들만이 아니다. 신창운, 박소빈 등 요즘 지역에서 '잘나가는' 작가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른바 '레지던시 파(派)'다. 서양화가 신창운(41)은 2년간의 인도 국립현대미술관 입주작가를 통해 한층 무르익은 '작품'을 지난달 귀국전에서 보여주었다. 또한 지난해 뉴욕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박소빈은 올 하반기 이탈리아에 진출하는 등 탄력을 받았다.

바야흐로 요즘 미술계는 레지던시가 대세다. 이를 뒷받침 하듯 광주시립미술관을 필두로 사립미술관·갤러리의 레지던시가 경쟁적으로 세워지고 있다. 특히 '레지던시의 효과'가 알려지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이 뜨겁다. 이들 가운데 광주시는 단연 돋보인다. 팔각정, 양산동 창작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광주시립미술관은 지난해 12월 중국 베이징에 레지던시를 세워 전국적인 화제를 모았다. 지자체가 외국에 레지던시를 개설한 것은 광주시가 처음이다.

하지만 국립현대미술관 등의 프로그램에 비하면 2% 부족하다. 우선 작업실 공간이 협소하고 입주작가들을 끌어주는 기획인력이 없다. 특히 작가들을 국내외 작가나 전시기획자·비평가들에게 소개하는 네트워킹은 미미한 실정이다. 상당수의 입주작가들이 국내외 미술계와의 '연결고리'를 원하고 있는 만큼 이젠 프로그램 내실에 힘써야 한다. 그래야만 레지던시의 선두주자로 떠오른 광주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다.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